

# 명리학적 질병진단과 예측에 관한 방법연구

류시옥

동방대학교대학원

---

##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Prognosis by the Arts of Divination

Si-Oak Ryu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Though modern medicine has taken rapid strides, varieties of intractable maladies and diseases go on increasing more and more. And so medical technolog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related to diagnoses and prognoses are being carried on. As the progress of genetics, all sorts of diseases have proved to be hereditary. This makes efficient use of the prevention of diseases. According to Sasang-Constitution medicine, each person inherently possesses a unique constitution different from that of any other person. The shapes and sizes, temperaments and characters of people have enormous variations that must affect our health and happiness. Without understanding our particular constitution, we must fall into poor health and disease. The food and exercise that are good for one person's constitution may not be good for another. No standardized medicine can adequately deal with our individual variations. Only a system that can discern our different constitutional types has this capacity.

This paper is to study Life-Regulating Science that has taken firm root in our culture from time immemorial, so that I suggest the methods of diagnoses and prognoses by using Life-Regulating Science. In the medical texts, psychological imbalances of Eum-Yang and Five Phases generate all kinds of diseases. Accordingly visceral manifestation and diseases as a future possibility may be known by the Four Pillars.

---

**key words** : *eum-yang, diagnosis, prognosis, balance of eum-yang, Life-Regulating Science*

---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등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율은 극히 저조하다. 암은 초기암인 경우 50% 치료율을 보인다고 하며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지방간 등 각종 생활 습관 병 등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민간 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치료율을 또한 높아가고 있으며, 신뢰도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자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후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측면도 영향을 준다는 유전인자를 밝혀냄으로써 건강예방과 관리에 많은 발전이 되고 있

---

\* 교신저자 : 류시옥.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대학원대학교.  
(E-mail : 189259@hanmail.net  
Tel : 010-3066-0546)

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질병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질병에 대한 관심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두되고 있으나 질병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채로 단지 병에 걸렸을 때 현대 의학에 의존하는 등 예방의학적 측면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상 체질 등 체질론에 의한 질병예측이나 자신에 대한 취약장기 등을 고려해 음식이나 약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체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명예측과 상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명리학을 이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신의 질병상태를 알 수 있으며, 대운 적용에 의해 언제 어떤 병이 나에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까지 많은 고서들이 질병론을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명리이론을 다룬 서적들은 질병에 대한 예측분야를 다루고 있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고전에서 바라보는 질병론과 예측법을 각종 관련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질병 예측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사주명리학을 이용한 질병예측관련 학위논문은 「장기별 증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자폐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암질환 발생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명리이론과 정신질환의 상관성 연구」, 「정신분열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등이 있다. 이들 논문들은 명리학을 적용하여 질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고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

기의 논문들은 각 질병별로 상관성을 연구는 부족하여 의료계통이나 일반인들이 질병진단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나 정형화된 틀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질병에 관련 있는 고서인 「연해자평」, 「삼명통회」, 「적천수」, 「명리요강」 등의 고서와 국내외 연구논문과 서적, 문헌을 조사하여 이론적인 기준과 질병예측을 위한 틀을 제시하였으며, 그 틀에 의거하여 필자의 고객 중 실사례를 위주로 분석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 4. 제한사항

질병예측의 틀을 이용한 많은 실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II.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질병에 대한 관점 및 예측법과 한계

### 1. 현대의학의 질병진단법과 한계

현대의학의 질병진단법은 대부분 첨단진단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초음파나 MRI의 발달로 인체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어 정확성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제한성 때문에 오진율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유전자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어날 때부터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사전에 자신의 질병취약점에 대해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질병에 대한 오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 2. 한의학의 질병진단법과 한계

한의학은 동양전통적인 치료법으로 민족정서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배워 질병예방이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민중의술의 일부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의학의 기본사상은 음양오행설에 의한 진단법과 치료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각 장기에 따른 오행의 특성을 활용한다. 오장은 간심비폐신으로 오행이 가지고 있는 색상과 맛 등을 적용하여 쉽게 질병을 예측하거나 치료하여왔다. 간의 색은 청색, 심장의 색은 적색, 비장의 색은 황색, 폐장의 색은 흰색, 신장의 색은 검정색으로 얼굴의 색상을 보고 해당 장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망진은 한의학의 기본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중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동무 이제마의 사상체질은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등으로 구분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과 질병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써 질병예측과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체질, 소음인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은 체질,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 체질로 구분되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타당한 점은 있으나 체질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체질을 식별하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고 측정하는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므로 정확한 체질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체질을 알기 위해서는 사주 상 나타나는 오행을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체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주명리에 의한 질병판단 및 예측

인간은 태어날 때 음양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4주8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주팔자는 오행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정확한 생년월일시만 알 수 있다면 자신의 정확한 체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판단하고 언제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또한 자연 치유될 것인가를 얼마든지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1차적인 병원 진단 후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찾게 되는 곳이 역술상담가들이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고 어떤 취약점이 있으며 언제 치료가 될 것인가, 심지어 언제 사망할 것인가에 대한 사망 시기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역술가가 정확한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해주려면 명리학적 질병 진단과 예측에 관한 방법연구가 필요하며 질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 때 효과적일 것이다.

## III. 음양오행과 十干十二支와 인체와의 관계

주자의 역학계몽에 의하면 우주의 태동과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역(易)에는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음양)을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으며 5기(五氣)가 유행하여 8괘를 낳는다”는 역의해설이 있다. 이 문구 안에 우주의 생성원리와 자연의 법칙이 함축되어 있다. 역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천지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둡고 혼돈상태를 태극으로 표현했다. 일종의 무의상태로 창조력이 내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혼돈된 상태에서 태극의 기운은 음과 양이라는 기운으로 갈라지게 된다. 음과 양의 기운은 다시 음에서 태음과 소양이, 양에서 소음과 태양의 4상으로 나뉘게 됨으로써 밤, 새벽, 낮, 저녁 등의 4개의 기운으로 나뉘게 되었다. 4상의 기운이 대립되어 에너지가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5행이 물질의 생명이 탄생되었다.

생명을 얻은 5행이 한 바퀴 돌 때마다 8괘가 탄생되는 것이다(박용규, 2006).

### 1. 음양학설에 대한 이해

음양은 태극에서 기의 움직임과 정지에서 발생하였다. 즉 한 기운이 움직이면 양이 되고 정지하면 음이 된다. 주역 계사전 위에서 이르기를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양의 성질은 발산하고 위로 오르는 성질이고, 음은 수렴하고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한다. 음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음은 양에 의지하고 양은 음에 의지한다. 둘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음과 양의 상호 반응에 의해 동과 정, 의 변화가 발생하고 만물이 변형하는 것이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발하고 의존한다. 끊임 없이 순환하며 서로에게 기능을 다하면서 천지의 법칙을 형성하고 있다. 소우주인 인간에게 있어 자연법칙에 따라 음에 치우치거나 양에 치우치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음양평형이 건강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박용규, 2006, pp77-78)

이는 하나이면서 둘인 만물의 상반된 기운, 즉 조화의 기본으로서 수학적인 값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가 바로 음(陰)과 양(陽)이다. 그래서 음양은 떨어져있을 수 없고, 떨어져있는 것 같아도 붙어있으며 개체(個體)가 아니고 합(合)이며 집합(集合)인 것이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의 현상에는 상하, 좌우, 천지, 동정, 출입, 승강, 주야, 명암, 한열, 수화 등 대립과 통일의 두 측면이 존재 한다. 사람의 음양을 말하면 겉은 양이고 안은 음이다. 인체의 음양을 말하면 등은 양이고 배는 음이다. 인체의 장부의 음양을 말하면 장은 음이고 부는 양이다. 음양이

조화되어 균형을 이루면 정신이 건정하고 음양이 분리되면 정기가 쇠진된다. 음양은 서로 대립과 통일을 이루면서 또 한편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떠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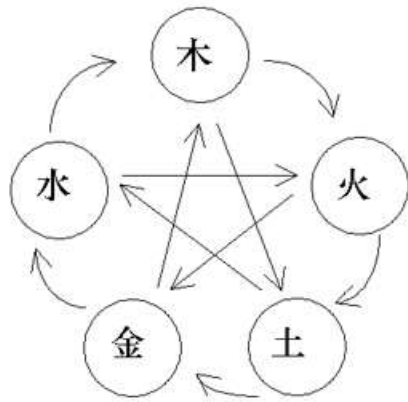
### 2. 오행학설

오행학설은 음양이나 4상과 별도의 이론체계로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행사상은 역경에도 직접 나오지 않는다. 오행이 구체적으로 문헌에 언급된 것은 공자의 역경해설본인 십익의 설괘전이다. 또한 문헌을 보면 역경을 해설 하였던 주자는 “태극이 한 번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아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 것이 양의가 되고, 양이 변하고 음이 변하여 사상을 낳아 오기(五氣)가 유행하여 팔괘를 이루었다”고 설괘한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진근, 2008)

주자의 역경해석에서 볼 수 있듯 오행이 역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후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경은 오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자가 설괘한 것처럼 오행은 4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4상은 일종의 상(象)이라 영어로 'image'이고 5행은 행(行)이라 기운의 작용으로 'move'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상은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고 오행은 만물의 변화요 작용이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을 이루는 기본원소 또는 원기라고 할 수 있다.

주자가 말한 5행이 유행 한다는 말은 4상에 또 다른 에너지 작용이 있어 5행으로 탄생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오행의 원리와 활용



1) 상생의 원리

하도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데 그 수는 성수와 생수로 구분되며 자리가 모두 10개이기 때문에 전수라고도 한다. **하도**란 수리오행의 생생의 원리로 우주의 질서인 방위를 가르쳐주는 기준의 설정으로 시계 방향의 우주 질서인 오행의 상생순환을 가르쳐주는 논리의 기준점이 되는 가설이다. 하도는 용의 등에서 나왔다는 거북이 등에서 나왔다는 말은 일종의 설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역은 우주의 근본원리에서 나온 것으로, 신비주의나 설화적인 요소는 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도는 오행의 탄생순서와 생수, 그리고 성수, 그리고 음양오행의 상생관계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오행은 수-목-화-토-금-수로 상생하면서 우주의 원리를 펼쳐게 되는 것이다. 하도에서 우주는 물에서 기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의 상생관계가 형성된다. 즉 물은 나무를 살리고(水生木),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활활 잘 타니 나무는 불을 살리고(木生火), 불이 타고난 모든 것은 재가 되어 흙으로 변하니 불은 흙을 살리며(火生土), 흙 속을 파면 광석이 나와 쇠붙이를 녹여낼 수 있으

니 흙은 쇠를 살리고(土生金), 모든 쇠붙이는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물이 될 뿐만 아니라 쇠는 차가워서 주변의 습기를 모아 이슬이 맺게 하니 쇠는 물을 살린다(金生水)는 원리를 적용하여 상생이론을 확립하였다.

2) 相剋의 원리

상극의 원리란 서로 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오행을 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오행으로부터 극을 당할 수 있다는 원리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극한 오행으로부터 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오행으로부터 극을 당하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극오행을 보면 수극화(水克火), 화극금(火克金), 금극목(金克木), 목극토(木克土), 토극수(土克水)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극을 하는 모습이다. 극한다는 의미는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대립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이론이다. 곧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니 물은 불을 이기고(水克火), 불은 쇠를 녹여 못쓰게 하니 불은 쇠를 이기고(火克金), 쇠는 도끼나 낫이나 톱을 만들어 나무를 찍고 베로 자르니 쇠는 나무를 이기고(金克木), 나무는 뿌리가 흙을 파고들어가니 나무는 흙을 이기고(木克土), 흙을 쌓아 물길을 막아버리니 흙은 물을 이긴다(土克水)는 이론이 성립되었다. 자연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살리는 작용을 하지만 또한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면 가차 없이 극을 하여 억제를 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는 냉엄한 원리가 들어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극의 원리는 하도낙서라는 곳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 거북이 등에 그려진 점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낙서는 점의 숫자를 이용해서 8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낙서는 오행의 상극의 원리와 법칙이 들어있다.

### 3. 오행의 特性

오행의 속성은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물질의 자연현상 및 그 성질에 대한 직관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오행의 개념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상서·홍범\*』에서는 “수·왈윤하·목·왈곡직·금·왈중혁·토·원가색”이라고 하여 오행의 기운을 설명하였다.

첫째로는 수요, 둘째로는 화요, 셋째로는 목이요, 넷째로는 금이요, 다섯째로는 토다. 수는 적시고 내려가는 것이고, 화는 타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목은 굽고 곧은 것이고, 금은 따르고 바뀌는 것이며, 토는 심고 거두는 것이다. 적시고 내려가는 것은 짠맛이 되고, 타고 오르는 것은 쓴맛이 되고, 굽고 곧은 것은 신맛이 되고, 따르고 변화하는 것은 매운맛이 되며, 심고 거두는 것은 단맛이 된다. 각 오행의 기운은 아래와 같다.

#### 1) 木의 기운

목의 기운을 “곡직”이라고 하였다. “곡”은 굽어서 휘다는 뜻이고, “직”은 곧다는 뜻이다. 곡직은 수목의 성장 형태의 특징으로, 나무의 가지는 굽고 줄기는 곧다는 데서 나왔다. 후에는 나무가 위를 향하여 곧게 성장하고 사방으로 자라며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현상으로부터 한층 더 추상화하여 성장·발전 등의 뻗어가는 기상을 특성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며 시간으로는 새벽과 아침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목의 기운을 운용하여 일반적으로 발생·생장을 목의 주요한 기운으로 삼는다.

#### 2) 火의 기운

화의 기운을 “염상”이라고 하였다. “염”은 불

꽃이 위를 향하여 타고르고 매우 뜨거운 것을 뜻한다. 염상은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불꽃·열기가 위로 치솟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온열과 성장·무성·추진을 화의 추상적 기운으로 확대해석하게 되었다. 계절로는 여름,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전과 한낮에 해당된다.

#### 3) 土의 기운

토의 기운을 “가색”이라고 하였다. “가”는 곡물을 심는 것이고, “색”은 곡물을 거두는 것을 뜻한다. 가색이란 실제로 인간이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농사 활동을 말한다. 후에 “토는 만물을 받아들이고 화생하니, 만물의 어머니이자 만물이 귀속되는 곳이다”라는 의미와, 통합이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었다. 계절로는 늦여름, 환절기에 해당하고, 하루의 시간에서는 새벽, 낮, 저녁, 밤, 각각의 시간 사이사이에 해당한다.

#### 4) 金의 기운

금의 기운을 “중혁”이라고 하였다. “중”은 순중한다는 뜻이고, “혁”은 변경·개혁을 뜻한다. 금의 중혁 기운은 금속물질이 사람의 뜻에 따라 녹고 달구어져서 그릇으로 주조된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금속이란 광물이 제련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는 사람의 뜻에 따라 광물이 변형되어 나온 것이므로 중혁이라 한다고 본다. 후에 금의 기운을 변혁·차가움·조절·정결·수렴 등으로 확대해석하게 되었다. 계절로는 가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후, 저녁에 해당한다.

#### 5) 水의 기운

수의 기운은 “윤하”라고 하였다. “윤”은 적셔서 윤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윤하란 물이 아래로 흘러가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수의 기운은 아래로 흘러서 촉촉하게 적셔준다. 후에 수는 지혜, 하향, 폐장, 포용 등으로 확

\* 한대 이전에는 ‘서’, 한 대에는 ‘상서’, 송대에는 ‘서경’으로 불렸으며 유가의 경전으로서 삼경중의 하나이며 고대중국의 역사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 해석 하게 되었다. 계절로는 겨울, 하루의 시간으로는 밤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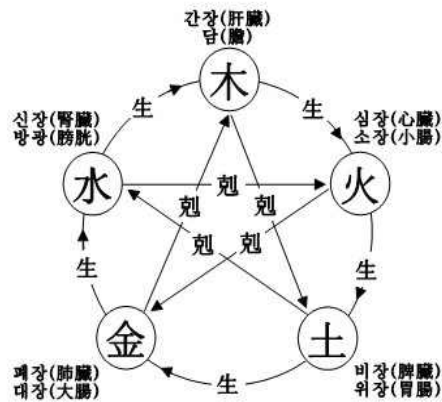
위에서 말한 바를 종합하면 오행은 목·화·토·금·수라는 다섯 가지 물질자체의 의미에서 벗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용과 속성으로써 각종 사물의 오행속성을 추단 연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정경대, 2004)

4. 오행학설의 의학에 도입과 발전

음양오행학설은 의학 분야에 도입되어 건강과 질병치료에 핵심적인 중심이론으로 발전되었다. 현존 의학의 최고경전으로 불리는 황제내경은 음양오행의 기본이론에 의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론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황제내경 소문음양상대론에 음양이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근본이며, 변화의 모체이며, 생살의 본시이며, 신명의 부이니 질병을 고치는데 있어서도 이 음양의 치료에 중점을 주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오행을 인체의 장기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오행의 속성을 해설하였는데 오늘날에도 동양의학의 핵심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핵심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최고의 의서라고 불리는 허균의 동의보감역시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마의 사상체질역시 오행설을 기초로 응용되어 국내의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구분	목	화	토	금	수
오장	간	심	비	폐	신장
육부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지	인묘	사오	진술 축미	신유	해자
오성	곡직	염상	가색	중혁	윤하
하루	새벽, 아침	오전, 한낮	경계 시각	오후, 초저녁	저녁, 한밤중
계절	봄	여름	환절 기	가을	겨울
색상	푸른 색	빨간 색	노란 색	하얀 색	검정 색
부정 적 감정	분노	증오, 조급	걱정, 근심	슬픔, 우울	공포, 스트레스

<<황제내경에 나타난 오행조건표>>



<장부와 관련된 오행의 상생 상극도>

5. 오행학설의 의학에 도입과 발전

음양오행학설의 문헌기록은 상서, 홍범에 처음 나타난 후 한나라 동중서(BC 179-104)에 의해 확립된 후 2000년의 긴 세월을 걸쳐 자연사상의 핵심이며 기본적인 논리로 자리잡아왔다(정창근, 2002). 또한 명리의 주요 고서에서도 음양오행설의 이론 명리해설에 맞도록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심효침이 저술하고 서락오가 주석을 붙인 자평진전(심효침저 박영창 역, 1997) 1장에 오행의 태동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천지에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다. 다만 하나의 기가 동과 정이 있어 음양으로 나뉘는 것이다. 음양은 각각 노소가 있으니 이리하여 사상으로 재차 나뉘진다. 노란 동이 극에 이르고 정이 극에 이른 상태이니 태양과 태음이 그것이다. 소란 동하기 시작함과 정하기 시작함이니 이것은 바로 소양과 소음이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일컬어 사상이라 한다. 오행을 사상에 배치할 수 있다. 수는 태음이고, 화는 태양이며 목은 소양이고 금은 소음이다. 토는 음양과 노소와 목화금수의 충기가 응결된 것이다” 자평진전에 밝힌 오행의 탄생은 역경이론을 그대로 응용한 것으로 사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행설은 역경에 근본뿌리가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음양오행학설원리는 운명감정학인 사주학에 도입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사주학이란 출생연월일시를 천간지지 여덟 글자로 치환하여 그 간지에 음양과 오행을 배정하여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의 원리에 의하여 한 개인의 운명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음양오행이 우주의 가장 기본법칙으로 의학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음양오행을 적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사주학이 예측이 가능한 것은 법칙의 일관성 때문이다. 사주학의 기원에 대해서는 난무하고 있다. 서자평 기원설, 이허중 기원설, 원천강 기원설등이 있다(이용준, 2004). 서자평은 동진시대 괘박의 저술인 옥조신응진경에 주석을 달았던 인물이며 원천강은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

진 인물이다. 주의 귀곡자가 저술하고 당의 이허중이 주석했다고 전해지는 이허중명서를 저술하였다고 전해진다(이용준, 2004). 사주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책은 괘박(서기 276-324)의 옥조신응진경으로 사주학의 창시자로 보는 학자가 많다. 사주학에 대한 이론은 고법사주학과 신법사주학으로 구분되는데 고법사주학은 이허중명서, 낙록자부주, 삼명통회등에 기록되어있으며 주로 신살을 주로 사용하였다. 신법사주학은 서자평(서기 907-960)으로 오늘날 일간위주 사주학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서자평은 자평학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다. 서자평은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옥조신응진경주, 명통부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통부는 만육오가 저술한 삼명통회\*(1578) 속에 들어있다. 이후 서승은 연해자평을 저술하였고 사주학의 입문서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밖에 자평진전, 적천수천미등의 이론서들이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이석영(1920)에 의해 연해자평의 영향을 받아 국내 최초로 사주첩경이란 이론서를 발간하여 사주학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었다. 사주학은 일부미신이라는 왜곡과 편견이 있었으나 수백년 동안 심오한 이론과 발전을 거듭해온 과학으로 평가되어야한다. 또한 대중 속에서 꺼지지 않고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음양오행의 우주원리와 법칙에 의한 이론적인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서를 종합해볼 때 오행은 우주탄생원리로 역경의 핵심사상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음양오행은 일부에서 미신적으로 치부하여 가치를 축소하려는 경향도 일부 있으며 아직까지 과학성이라는 명목 하에 그 진가가 참가치를 인정받

\* 명나라시대 인문인 만육오가 저술한 명리학과 오성학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지는 못하고 있으나 전통동양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학이나 동양사상의 핵심이론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만약 음양오행을 부정한다면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방치료를 부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동양사상이나 전통적인 학문도 부정해야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하거나 각종 문제 발생 시나 애경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주추명학도 또한 부정해야할 것이다. 동양의학이나 사주추명학 역시 근본핵심은 음양오행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내의 한과 학자에 의해 음양오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음양오행의 과학성에 기여하고 있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다(박용규 2006). 이제 음양오행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으로 치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음양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할 것인가에 전념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보여 진다.

#### 6 오행과 십간 12지

10간과 12지의 유래는 황제시대(B.C 2596)에 존재했었고 상국상고시대의 천황씨가 창제한 것이라고 하는 2가지설이 있으나 황제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승의 연해자평에 의하면 황제시대의 혼란시대에 창점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되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하늘이 십간과 십이지를 내려주자 황제는 십간을 둥그렇게 펴서 하늘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12지를 네모지게 펼쳐서 땅의 모양을 형상화하니 비로소 천간이 하늘이 되고 지지가 땅이 되었다는 설화를 기록하고 있다(서승, 연해자평 20쪽).

5행이 있는데 다시 10간과 12지가 탄생은 한 것은 오행에 음양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늘에도 음양이 있고 땅에도 음양이 있다는 것이

다(심효침저, 박영창 역, 2002). 하늘의 기운을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 하는데 그 수가 10이므로 십간 또는 천간이라 하고, 땅의 기운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라 하는데 그 수가 12이므로 십이지지 또는 지지라고 한다. 10간은 자연현상에서 식물이 자라나서 커가는 모습에서 출발하여 부수되는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 10간과 12지는 음양오행을 보다 세분화한 하늘과 땅의 에너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각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사주해석에서 활용해야한다. 각 고서에서 나타난 10간의 의미를 알아본다. 10간은 식물이 싹이 터서 자라나는 다시 새 씨앗으로 여물어져 다음을 기약하는 시간적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1) 甲 : 봄철에 나무가 꺾질이 터지는 것을 말한다. 물상으로 뿌리가 없는 나무로(연해자평), 큰 동량의 나무(삼명통회)를 의미한다.

2) 乙 : 싹이 뻗어나갈 때 을자 모양의 곡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물상으로 뿌리가 있는 나무(연해자평), 생기 있는 나무(삼명통회), 부드러움(적천수)를 의미하고 있다.

3) 丙 : 태양을 뜻하며 만물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물상으로 큰 밝은 태양(연해자평), 큰 태양의 기(삼명통회), 맹렬함(적천수)를 의미한다.

4) 丁 : 만물이 성장하는 뜻을 가진다.

5) 戊 : 만물이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물상으로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뜻하며(적천수), 제방이나 성벽을 의미한다(연해자평, 삼명통회).

6) 己 : 만물의 성장이 완전하게 되어 외형적인 성물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물상으로 전원을 의미한다(연해자평, 삼명통회).

7) 庚 : 강경하여 만물이 내적으로 충실해져서

거의 완성된 것을 뜻한다. 물상으로 큰 쇠덩어리를 말하며 금, 은, 동을 의미한다(삼명통회).

8) 辛 : 만물의 모든 성장과 결실을 완수해서 열매가 모체로부터 떨어지는 사별의 고통을 뜻한다. 물상으로 주옥, 수은, 진주를 뜻한다(연해자평, 삼명통회).

9) 壬: 회임을 뜻한다. 또 음양이 서로 교차하여 생성의 일기를 끝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물상으로 큰 강을 뜻한다(연해자평, 삼명통회).

10) 癸 : 새로운 세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상으로 연못이나 물가를 의미한다(삼명통회).

12지는 오행의 특성에 맞는 12개의 동물을 비유하여 만들었다. 우리주변에서 자주 대할 수 있는 12가지의 동물의 성정과 활동시간과 발톱의 수에 의한 음양의 구분에 의해서 배열된 것이다. 지지가 천간보다 2개가 많은 것은 토는 다른 오행과 달리 모든 것에 존재하므로 동서남북에 다 배속되기 때문이다. 즉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 수는 북쪽에 각각 하나씩 배속 되지만, 토는 네 곳에 다 배속되는 것이다. 12지의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陰陽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五行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天干	癸	己	甲	乙	戊	丙	丁	己	庚	辛	戊	壬
季節	冬	冬	春	春	春	夏	夏	夏	秋	秋	秋	冬
方位	北	北	東	東	東	南	南	南	西	西	西	北
동물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人體	머리	비개	사슴	신기	생기	심기	정기	다리	대장	폐	뼈	신장
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12지의 상징적 의미>

1) 子 : 양기가 싹트는 것을 말하니 아이를 잉태한것과 같다.

2) 丑 : 굴중됨을 뜻하니 한기가 스스로 굴복하기 시작한것이다.

3) 寅 : 양기가 나와 말물이 활동하려는 의욕

이 강함을 뜻한다.

4) 卯 : 만물이 땅위로 솟아나오는 것을 뜻한다.

5) 辰 : 만물이 기개를 펴고 발전기상을 지니고 있다.

6) 巳 : 양기가 충만함을 뜻한다.

7) 午 : 음양이 교체함에 있어 서로 놀라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8) 未 : 양이 쇠잔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9) 申 : 만물의 형체가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10) 酉 : 만물이 그 결실을 완료한 것이다.

11) 戌 : 만물의 생성일대가 멸진했음을 뜻한다.

12) 亥 : 만물의 일대는 끝났지만 그 일대의 씨앗이 수장됐다.

또한 삼명통회와 적천수에서는 10간 12지를 인체와 신체에 적용시켜 질병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도록 분류하였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삼명통회	장부 소속	담 머리	간 목	소장 어깨	심장 가슴	위장 옆구리	비장 배	대장 허리	폐 허벅지	방광 정강이	신장 발
적천수	장부 소속	간 머리	담 목	소장 어깨	심장 가슴	위장 옆구리	비장 배	대장 허리	폐 대퇴부	방광 종아리	신장 발

<10간 신체 대비표>

구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삼명통회	장부 방광	귀	두손 모발	10 손가락	피부 어깨 위	얼굴 인후 치아 항문	정신 눈동자	어깨	정혈	허벅지 복사뼈	머리 음낭	신장
적천수	장부 소속	귀	두손 모발	10 손가락	피부 어깨 위	얼굴 인후 치아 항문	정신 눈동자	어깨	정혈	허벅지 복사뼈	머리 음낭	신장

<12지 신체 대비표>

#### IV. 명리학의 질병예측에 대한 이론적 근거

##### 1. 고서에 나타난 질병론과 질병예측론

##### (1) 적천수에 나타난 질병론

1) 五行이 화목하면 일생에 병이 없다. 오행의 기운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질병이 없으나 치우치고 혼탁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상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하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팔자의 오행이 화해하고 세운에서도 화하며 장부의 오행이 중화하고 다섯 가지의 맛이 화하니 화란 것은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오행이 화목하면 오미가 고르니 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의 화목은 생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완전하게 되어 결함이 없다면 화목하다고 한다.

2) 忌神이 오장으로 깊이 들어가니 병이 흉하다. 음탁한 기운이 지지의 장간에 매장되었다는 말이다. 토는 비위가 되는데 비는 느슨함을 좋아하고 화평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목이 토로 들어오면 화평하지도 느슨하지도 못하여 병이 된다. 금은 대장과 폐로서 폐는 흡수를 잘 해야 하고 대장은 퍼지는 것이 좋는데 꺼리는 화가 금으로 들어오면 폐의 기운이 위로 치솟고 대장은 퍼지지 않으니 병이 된다. 수는 방광과 신장으로 방광은 윤택함을 좋아하고 신장은 단단함을 좋아하는데 꺼리는 토가 수로 들어오면 신장은 메마르고 방광은 건조해지니 병이 되는 것이다. 목은 간과 담으로 간은 조달을 잘해야 하고 쓸개는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꺼리는 금이 목으로 들어오면 즉 간은 급해져서 불을 생조하고 담은 차가워져서 병이 된다. 화는 소장과 심장으로 심장은 너그려워야 하고 소장은 수렴을 잘

해야 하는데 꺼리는 물이 화로 들어오면 즉 심장은 급박해지고 소장은 느슨해지니 병이 된다.

3) 木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血의병이 된다. 봄의 목이 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이 발생하여 영화롭게 함을 반기는 것이고 겨울나무가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화의 해동을 기뻐하기 때문이며, 여름나무가 뿌리가 있으면서도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화의 더움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땅의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을의 목이 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금의 날카로움을 설하고자 함이며 살의 완고함을 화하기 위함이다. 봄이나 겨울에는 생왕한 나무지만 혹 쇠약하다면 물을 받아야 하고 여름이나 가을에는 나무가 휴수하지만 왕하다고 해도 물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것은 즉 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받지 않으면 피가 흐르지 못하여 혈액의 병이 되는 것이다.

4) 土가 火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氣가 상한다. 건조하면서도 단단한 토가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의 윤택함을 기뻐하기 때문이며, 허하고 습한 토가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목의 극을 꺼리기 때문이다. 얼어있는 토가 뿌리가 있으면서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이 얼어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지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가을의 토가 지지를 얻고서도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금의 남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토의 설기함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조열함을 만나면 땅은 윤택하지 않고 너무 습하면 하늘이 불화한즉 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을 용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비가 허해지니 받아들이지 않는 즉 병이 된다.

5) 겨울의 金이 차가우면 냉기침을 하고 더우면 마른가래가 되며, 여름의 토는 열기가 많으면 풍담이고 메마르면 피부병이며 담과 관련된

병은 주로 목화에서 연관되어 있고, 독율이 생기는 경우는 화금의 마찰로 발생하며, 금수가 메마르고 상하면 신경이 허하고 수목이 서로 싸우면 비위가 설기되는 것이다.

(2)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 나타난 질병론

삼명통회에서는 역경과 황제내경의 오행의 원리와 질병과의 관계를 폭넓게 응용하여 고서중에서 사람이 타고난 사주 상에 나타난 음양오행을 가지고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가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역경의 8괘의 원리를 이용해 10간과 12지를 인체에 적용하였으며 오행의 상생상극원리의 적용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이용하였다. 또한 사주의 해석에서 필요한 육친론, 형충과해, 12운성, 신살등을 폭넓게 적용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삼명통회에서는 무릇 질병은 모두 五行의 불화에서 기인된 것이요, 즉 사람 몸의 오장이 화하지 못하는데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오행은 오장육부를 통하고 九竅를 통한다. 10가는 육부에 속하여 병을 얻는다고 했다. 본 고서에서는 역경의 8괘의 기본방향인 離, 坎, 辰, 兌의 남, 수, 동, 서 방향을 이용해 신체에서 질병발생부위를 설정하였다.. 丙丁巳午는 화국으로 8괘의 남쪽에 해당하는 리(離)방향에 해당되므로 질병은 신체의 상부위에 있고 壬癸亥子는 수국으로 북쪽의 감구역으로 질병은 하복부에 있다. 甲乙寅卯는 辰구역으로 질병은 좌측에 있고 庚申辛酉는 兌구역으로 병은 우측에 있으며 戊己辰戌丑未는 坤干에 속하니 주로 병은 비위와 중완에 있다고 하였다. 삼명통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행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원인을 간추려본다.

1) 五行의 일그러짐은 질병을 발생한다.

甲乙寅卯의 木이 일그러짐은 간 관련 질환이

발생하여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된다고 하였다. 丙丁巳午의 화의 일그러짐은 피고름이 나고 부스럼과 옴으로 인하여 아프고 말 못하는 고통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戊己辰戌丑未의 土가 일그러지면 몸이 붓고 입 냄새가 나며 토하고 학질에 걸리며 명치가 더운 질병에 걸린다고 하였다. 庚申辛酉의 금이 일그러지면 코가 막히고 딸기코가 되고 말을 더듬고 우울해지며 기침을 한다고 했다. 壬癸亥子가 일그러짐이 발생하면 신장병인 오줌이 뿌옇고 냉대하의 만성질염, 복통과 설사, 탈장 등의 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2) 오행이 氣를 많이 받으면 극을 많이 받는 오행관련 신체에 질병이 발생한다.

갑을이 庚申辛酉의 극을 받으면 간과 쓸개가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폐병으로 고생하며 근육과 뼈가 아프다. 丙丁이 火가 壬癸亥子의 水의 극을 많이 받으면 심장이 약하고 혀를 물고 넘어지는 간질병, 급만성경기등이 발생한다. 무기인 토가 甲乙寅卯의 목을 많이 보게 되면 비장과 위가 건강하지 못하고 잘 토하며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 庚申인 金인 丙丁巳午를 많이 보게 되면 주로 치질과 천식, 해수 등이 발생하게 된다. 壬癸 水가 戊己辰戌丑未의 土를 많이 보게 되면 유정과 소변불통 등이 발생한다.

또한 힘줄과 뼈가 아픈 것은 목성이 金에 의해서 상했기 때문이고 눈이 어둡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화성이 水를 만나 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한 土가 왕성한 木의 대운에는 비위가 상하는 것은 정해진 논리이며 약한 金이 화가 왕한 운에 이르면 혈질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3) 오행이 死絶되면 질병이 온다.

水가 사절되었을 때 신장에 질병이오고 火가 사절되면 건망증 등 정신불안질환이 발생하고, 木이 死絶되면 현기증과 눈 질환이 발생하며, 金

이 死絶되면 기가 허하여 기관지천식, 기침, 피부와 모발이 타고 건조하며 대장에 질병이 발생한다. 토가 死絶되면 얼굴이 누렇게 되고, 먹는 것이 줄어들고 구역질이 나며 공상, 망상, 건망증 등이 발생한다.

4) 질병은 刑沖과 相剋에서 일어난다.

무기토가 칠살을 만나면 위가 약하고 을미갑오가 칠살을 만나면 자라목처럼 목이 짧은 사람이 많으며 계묘기축이 서로 형극하면 허리와 무릎에 병이 생긴다. 일과 시가 쇠패하면 병이 낫기가 어렵고 근심도 크다. 간지가 형극과 해가되면 작은 병이라도 잘 낫지 않고 기운을 얻게 되면 편안하고 화기가 돈다.

5) 상관, 칠살, 재성 등은 질병과 관련이 많다. 병의 증세는 육맥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죽고 사는 것은 오행의 이치를 넘지 못하니 자세히 흥쇠를 연구한다면 만가지중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무기토가 생시의 기가 온전치 못하고 월과 시에 상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머리와 얼굴이 쇠약해진다. 일주가 무기일생이 지지에 화국이 더하여 임한다면 기가 혼증이 날 것이며 형충하고 극과하면 잔질이 많을 것이며 대머리가 되고 눈이 어둡게 된다. 병정일간에 오행이 쇠약하고 칠살이 지지로 삼합하면 의식이 부족해 구하게 되고 잔병치레를 하게 된다. 임계가 거둬 있어 왕한데 시의천간에 재성을 보게 되면 눈에 질병이 있게 된다. 병정화가 왕하여 병이 된 것은 방비하기 어려우며 사주가 진사대운 휴수방향이 좋고 목화상생이 진사대운에 이르면 말 못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고생하다가 죽는다.

6) 오행이 극하는 것이 太過不及자는 병이 많다. 내경에 이르데 동방이 실하면 반대편인 서방이 허하고 화가 왕하여 설기되면 북방수로 보

충하라. 동방이 실한자는 목이 지나치게 왕성한 것이요, 서방이 허약한 자는 금이 불급이기 때문이다. 남방에 설기하는 자는 화가 지나친 것이요, 북쪽을 돕는 자는 수하 불급인 때문이다. 이리므로 오행의 지나치게 많은 것과 모자라는 것은 모두 다 병이된다. 사람의 사주에 内外上下의 오행이 화평한자는 병이 없고 전극이 태과하거나 불급하게 되는 것을 보면 모두다 질병이 된다고 하였다.

7) 相生과 相剋되어 생왕되면 疾病이 온다.

서로 상극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金과 火가 극이 되어 생왕되면 머리에 부스럼이 나고 수종다리가 되며 다리가 마비된다. 토와 목이 상극되어 생왕되면 답답증, 피곤증, 중풍이 발생한다. 금과 목이 극하여 생왕 되면 주로 사지골절과 폐병, 반신불수로 고생하게 된다. 수와 토가 서로 극을 하면 비장이 습하여 설사를 하고 배터부룩과 가래가 차서 기침을 하는 병에 걸리게 된다. 서로 상생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화와 목이 상생되어 생왕되면 눈이 충혈 되고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화토가 상생되어 생왕되면 입술이 튼튼하고 사절되면 입술이타고 변비가 발생한다. 금수가 상생되어 생왕하면 기도가 순하지 못해 막히고 사절되면 유정된다.

8) 병증을 볼 때는 먼저 일간위주로 하고 다음은 월령을 논하고 그런 연후에 년과 시를 본다. 상관이 많으면 주로 병이 많고 살이 거둬어도 병이 많다.

9) 겁살은 주로 소장, 귀와 목구멍에 질병이 생기고, 관부살은 주로 허리와 다리에 질병이 생기며, 합지살은 주색으로 병이 들고, 매모살은 주로 어리석고 흑이 붙을수도 있다.

(3) 연해자평에 나타난 질병론

송대 서승의 저술이 연해자평에서는 질병이란

정신기혈이주관하고 팔자 간지의 오행중 생극하는 뜻에서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취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오행의 간지가 태왕하거나 불급하면 모두 질병이 된다고 하였으며 각 오행별 질병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1) 木命 : 목명은 경신, 신유 금을 많이 보면 간과 담에 병이 든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가슴 두근두근, 폐병, 현운, 눈 침침, 중풍, 안면신경마비증, 신경통, 머리카락과 수염이 빠지는 질병이 발생하고 근육과 뼈가 아픈 것은 대개 목이 금에 의해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火命 : 수를 보는 것으로 해자수가 왕지면 주로 소장과 심장에 질환이 있다. 대머리, 발열로 인한 발광, 실경, 눈이 어둡고 침침한 것은 화가 수의 극상을 만나기 때문이다.

3) 土命 : 목을 보는 것으로 인묘목이 왕향에 있으면 주로 비장과 위장이 손상된다. 배속 더부룩함, 설사, 구토, 피부병 등이 발생하고 토가 허약한데 목왕지에 능하면 반드시 비장에 손상이 온다.

4) 金命 : 화를 보는 것으로 사오화가 왕치에 있으면 주로 대장과 폐에 병이 생긴다. 치질, 폐결핵, 붉은 악창 등이 발생한다. 금이 약한데 화염지를 만나면 반드시 혈질병이 생긴다.

5) 水命 : 수명이 토를 보는 것으로 사계가 왕월하면 주로 방광과 신장에 병이 생긴다. 몽정, 치통, 요통, 냉대하등이 발생하며 사람의 신장부위에 차가운 병이 있는 것은 단지 수가 토의 극상을 당하는데서 부터 연유된다고 하였다.

#### (4) 명리정종에 나타난 질병론

명대 장신봉의 저술인 명리정종에서는 오행이 극을 만나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며 관피는 재액으로, 일간이 패하면 질병이 많다. 일, 시가 쇠약하면 큰 병이고 지지와 천간이 모두 형이 되

면 비록 작은 병이라도 낫지 않으며 토가 패하면 위장에 적이 있고 의보는 수가 사묘를 만났기 때문이다. 정화가 해묘미 목국으로 왕성하면 이화의 강한 열기에 병들고 병화가 신자진 수국으로 기운이 끊어지면 감수의 심한 한기에 상하게 된다. 특히 현침이 있으면 얼굴과 사지에 상해가 있고 양인이 있으면 팔뚝에 돌침을 놓고 넓적다리에 뜸을 뜨게 된다고 하였다.

#### 2 국내연구활동

국내에도 명리고전이론을 중심으로 명조와 질병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정창근은 박사학위논문에서 장기별 중증질환 수술부위 명리학적으로 분류한 연구에서 오행의 태과성 및 불급성과 장기별수술부위와 관계, 원국피상 및 유년피상의 상극성과 장기별 수술부위와 연관성, 오행의 유년기신과 장기별 수술부위와 연관성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정창근, 2002). 또한 문종란은 석사학위논문인 암질환 발생에 관한 명리학적인 연구에서 명리고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암환자 명조를 조사한 결과 오행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 태과 또는 불급 되었을 때, 형극과해가 있을 때, 인간이 쇠사묘절 되었을 때, 대운과 세운이 극을 받거나 합이 이루어지면서 무너졌을 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문종란, 2003).

국내 주요 저술 중에 언급된 내용으로는 육친을 이용하여 사망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사주중에 재성이나 식신, 인성 등이 대운과 유년에서 파괴될 때 사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남궁상, 1991). 그는 구체적으로 오행의 태과이론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왕성한 오행(태과한사람)이나 부족한 오행은 질병이 된다는 실천사주를 발전시켰다. 약한 오행은 항상 관리하므로 큰 병이 오

지 않으나 강한 오행은 병이 오면 크게 온다. 그가 저술한 사주기초연구에 질병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남궁상, 1991).

(1) 사주에 목이 태과한 사람은 비위가 극히 쇠약하게 되며 신장의 질병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조갈증과 근육통, 신경통이 오게 되며 허풍을 잘 떠는 경향이 있고 폐기가 쇠약하게 된다.

(2) 화가 태과한 사람은 화는 심장이므로 혈행 불순에 고혈압, 신수와 정액이 부족하므로 조루증, 조빈뇨증이 오고 방광골수와 폐대장, 위열상기, 두통, 안충혈, 하혈, 변비, 빈혈, 중이염 등이 오게 되며 간도 약하여진다.

(3) 금이 태과한 사람은 뼈의 발육부진, 냉증, 간담약, 심약, 신경통, 안질, 관절통, 수족절상, 양기부족, 사지중착, 위병, 두통, 광증, 중풍 등이 오게 된다.

(4) 수가 태과한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 안질, 위장약으로 소화불량, 도심발, 소변량 과다, 척수 신경통, 늑간과 늑막신경통, 냉증이 오게 된다.

(5) 토태과자는 신석, 방광, 뇨도염, 혈소, 비만증, 헛배부름증, 치통, 이명증 등이 있다.

또한 박청하는 사주와 질병론에서 사주분석도구에서 사망과 질병예측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분석하였는데 무자오행론, 공망론(특히 식상), 충합론과 신살론(특히 식상)에 대해 많이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육친론, 좌표론, 격국용신론, 대운론등을 언급하고 있다. 박청하에 따르면 육친중 사주에 관성이 거듭하면 식상에 무리를 주므로 먼저 소화기계에 부담을 준다고 하였고, 편관이 가세하여 일주가 매우 약하면 식신은 성장의 별이 되는데 식신을 방해 하므로 몸이 메마르고 심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팔자에 식신상관이 거듭하면 인수가 약화되고 일주가 쇠약

해지는데 이런 경우 정신질환이나 신경쇠약이 오게 된다고 하고 지나친 방탕으로 생기는 병이나 여자가 자식을 다산하고 나서 생기는 산후병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체와 관련해서 육친의 사용법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비견과 겁재: 식신의 밭이 되므로 원기에 해당하고 척추와 기본적인 원기에 해당한다. 록을 충하는 해에는 건강이 나빠진다.

(2) 식신과 상관: 소화기계, 생식기관, 사지, 활동에 필요한 분야의 장기 및 신체부위에 해당한다. 식상은 건강성 전체를 총괄하므로 식상이 약화되면 건강이 약화된다.

(3) 편재와 정재: 정재는 내장의 배터리와 같으니 간과 유사하고 편재는 젊어지고 가는 짐과 같다. 따라서 재가 지나쳐 나와 조화롭지 못하면 모두 짐이다.

(4) 편관과 정관: 인체의 제어기관이라 부르는 두부, 호르몬, 신경계와 역할을 한다.

(5) 편인과 정인: 인체를 쉬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과 관련된 신체 장기가 된다.

또한 그는 10정격에 의한 기본적인 수명의 장단을 기술하였는데 파격이 아니고 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1) 건록격 : 장수

(2) 양인격 : 신강하여 평소에는 건강하나 급성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악사가 많다고 한다.

(3) 식신격 : 유기하면 아주 장수한다. 단 형, 충, 파, 해, 공망이면 오히려 보통수명보다 짧다고 한다.

(4) 상관격 : 무구조하면(인수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으면)단명, 사고, 악사한다. 구조하면(인수에 의해 조절하면)장수한다.

(5) 정재격 : 평균수명, 또는 장수

(6) 편관격 : 과로에 의한 단명, 악사, 마비성 질환, 보이는 곳에 수술 자국이 있다.

(7) 편인격 : 평균수명보다 짧으나, 신체에 장애를 안고 있으면 오히려 장수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술자국이 있다.

(8) 정관격 : 평균수명 또는 장수.

(9) 정인격 : 평균수명, 자기 건강을 잘 챙긴다.

추성우 (1992년 )는 현대사주추명학에서 육친에 대한 질병론에서 다음과 같은 질병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1) 비견 : 소년기에 대체적으로 건강하나 청년기에 지장이 있으며 만연에 무리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질병보다 부상을 당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견이 편재를 만나면 병원과 인연이 많고 정관에 상관을 동반하면 낙상을 당하거나 타인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부상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2) 겁재: 정신적인 질환, 즉 스트레스, 노이로제가 주원인이다. 환경의 불만과 고독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3) 식신 : 건강에 지장이 없지만 비만이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위장이나 간장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심장과 혈압계통의 장애도 초래함.

(4) 상관 : 사고 등으로 부상하여 수술까지 하는 암시가 있다. 소화기계통, 여성의 부인과계통 질환이 있다.

(5) 편재 : 무리하기 쉬운 성격으로 과로나 섹스 등에서 오는 질환이 예상된다.

(6) 정재 : 신경계통, 심장병, 여성은 혈압, 빈혈증, 간질병 등이 예상된다.

(7) 편관 : 신경통, 관절계통 질환이 예상된다.

(8) 편인 : 신경, 노이로제, 심장, 혈압 등의 질병이 예상된다.

(9) 정인 : 호흡기나 위장에 약간의 장애가 예상된다. 사주정설 저자 백영관(1991)은 장수와 단명, 사망 시기, 질병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장수할 사주

1) 오행을 모두 구비하고 서로 균형된 것.

2) 사주에 충극이 없는 것.

3) 합이된 것은 모두 사주 상 필요치 아니하는 한신이거나, 합이 되어 회신으로 화 하는 것.

4) 충거되는 것은 모두 기신인 사주.

5) 일주가 왕성하나 태과하지 않는 것.

6) 신왕하고 관살이 약하나 재성이 있는 것.

7) 신왕하고 새성이 약하나 식상이 있는 것.

8)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있어 수기가 유행된 것.

9) 일주가 약하고 인수가 있는 것.

10) 대운이 용신 및 회신과 상극되지 않는 것.

(2) 단명할 사주

1) 일주가 심히 약한 사주.

2) 용신 및 회신이 미약하고, 기신이 왕성하거나 지지에 심장되어 있는 것.

3) 용신 및 회신이 미약하고, 기신이 왕성하거나 지지에 심장되어 있는 것.

4) 용신 및 회신이 합거되어 약화되고 기신이 충거되지 아니한 것.

5) 신약하고 인수 및 편인만 태왕한 사주.

6) 신왕이면서 극누가 전혀없고 외격에 속하지 아니한 사주.

7) 신약용신하는 사주에 재성이 인수를 파극할 때.

8) 신약이 사주에 식상이 중첩될 때.



9) 사주가 급한수냉하고 습토만 있어 과습할 때.

10) 사주가 목화로만 되고 조토가 있어 과조할 때.

11) 초, 중년 대운이 용신과 심히 상극될 때.

(3) 흉사할 사주

1) 사주에 양인이 여러 개 있을 때.

2) 사주에 편관이 태왕하여 식상에 의해 견제되지 못할 때.

3) 역마와 양인이 있을 때.

4) 도화, 목욕, 양인, 편관 등이 모인 사주는 색정으로인 해 횡사한다.

5) 월지에 관살이 있고 충극될 때.

6) 양인과 상관이 동주할 때.

7) 사주에 괴강이 많을 때.

8) 왕성한 오행을 충극하거나 충극당할 때.

9) 신약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에 재성이 태왕할 때.

(4) 사망시기 : 우선 사주의 격국에 의하여 수명의 장단을 정하고 이를 대운과 년운의 길흉과 비교하여 정한다. 대운과 연운이 사주상의 육신을 극해하면 반드시 생명의위험이 닥쳐온다.

1) 대운과 연운의 길흉은 용신과의 상극여하에 의하는데 중점은 대운보다도 년운에 있다. 보통 신수의 길흉을 정함에 있어 중점은 대운에 있으나 사망 시기를 정함에 있어 년운을 중심으로 정한다. 이것은 간명법상의 하나의 활용법칙이다.

2) 천간이 일기인 사주는 사주에 식상이 왕성하지 않는 한 재운을 만나면 군비쟁제가되어 십중구사한다.

3) 신약사주는 재관 및 식상운을 만나면 생명이 위험하다. 특히 비겁이 용신이면 관살운, 인수 및 편인이 용신이면 재운에 조심해야한다.

4) 신강하고 재성이 약한 사주는 정재가 있으면 겁재운, 편재가 있으면 비견운을 조심해야한다.

5) 일주가 태왕한 사주는 인수 및 편인운을 만나면 생명이 위험하다.

6) 사주에 흉신 즉 기신 또는 기신을 생조하는 구신이 있으면 그 흉신이 생황해지는 대운 또는 세운에 생명이 위험하다.

(5) 질병에서 평생 무병자는 사주 상 오행이 안전되어 결손이 없는 사주로 오행이 조화되어 평생 아무런 질병이 없이 살수가 있다고 한다. 질병에 잘 걸리는 사주는 오행의 부조화로 오행이 태강하거나 태약한 사주다. 평생 다병자는 오행이 상배되고 불순하거나 기신이 지지에 심장된 것이다. 오행이 불순하다는 것은 간지가 좌우 상전하고 상하하극하며 오행 상호간의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는 사주를 말한다.

### 3. 질병예측을 위한 기본이론 및 구조

위의 고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서에서는 사주명리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데 이용하고 예측하여왔다. 국내에서도 많은 명리학자들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질병 예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대중사이에서도 몸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질병이 자주발생하거나 암등 난치병에 걸렸을 때 역술가를 찾아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 사주명리학은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으로 운명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과 명이 나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운명이 좋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고서에서 질병을 판단하는 방법은 운명을 감정하는 원리와 기법이 유사하나, 다만 다른 것은 음양오행의 신체적응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사주를 이용하는

질병 예측학은 동양의학과 결합으로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위 고서에서 나타난 질병진단과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오행이 태과하거나 불급하면 질병이 발생한다(적천수, 삼명통회, 연해자평)오행 이 태과하거나 불급하다는 것은 오행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운명감정에서도 중요한 원리이듯이 질병예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일간이 패하면 질병이 많다(명리정중). 일간은 사주에서 자신으로 일간의 강약은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질병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정확한 질병예측법이다(정현우, 1993).

1) 갑 : 머리의 질병이나 상처, 두통, 두중 등의 지병이 있다. 갑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기신을 만나고 그것에 더하여 인수도 기신을 만나면 신경쇠약이라든지 뇌종양 또 목뼈 마비 등의 위험도 있으며 교통사고도 조심해야한다.

2) 을 : 인후에 결점이 있다. 편도선이나 경부 임파선의 종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편도선을 약화시키면 신장염, 심장병, 류머티즘이 발병한다.

3) 병 : 위장이 약하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4) 정 : 대체적으로 건강한데 심장병과 순환기계통에 주의한다.

5) 무 : 위암등 위관련 질환에 조심해야한다.

6) 기: 장이 약하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장암이나 직장암이다.

7) 경: 폐,대장의 질환조심. 변비가 있다.

8) 신: 호흡기 계통이 약하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색이 창백하고 피부가 약하다. 천식이라든

가 신경통 등에도 걸리기 쉽다.

9) 임 :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당뇨병이나 방광, 신장조심.

10) 계 : 수분과 관계가 있다. 계일생은 신장이나 편도선이 약하다.

(3) 습, 形, 沖, 破, 害,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1) 합에 의한 작용

합은 각오행이 2개내지 3개와 조합을 하여 다른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은 대부분 좋은 작용을 하나 너무 많이 있거나 오행의 균형을 무너뜨릴 때는 질병의 작용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합은 합 자체 보다도 다른 오행과 조화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 질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은 천간합, 지지합, 지지삼합, 방합 등이 있다. 천간합은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계합=화가 있다. 지지합은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오미합=화이다. 지지삼합은 인오술합 =화, 신자진합=수, 사유축합=금, 해묘미합=목이다. 방합은 계절합이라고 하는데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다.

2) 충에 의한 작용

沖이란 정반대의 방위에서 서로 부딪혀 충돌한다는 뜻이다. 합과는 반대 개념이고 상극 보다는 더욱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개념이다. 천간충에는 갑경충, 병임충, 을신충, 정계충이 있으며 지지충에는 자오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축미충, 사해충이 있다. 천간과 지지 모두 일곱 번째가 되면 오행이 서로 상극 관계에 있고 음양으로 상호 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상대가 되므로 상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沖은 충돌, 해산, 분리, 파괴, 살생, 공격 등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새로운 움직임 즉, 발동, 시작, 분발,

개적, 가속 등의 속성이 있다. 자오충이 있으면 질병으로는 심장이나 신경 계통이 약해서 고생하거나 치질이나 정신 신경 계통의 병이 있게 되며,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잘 치유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묘유충이 있을 때는 질병으로는 폐 질환이나 신경통이 많이 발생하고 수족을 다칠 수도 있다. 인신충은 역마충이며 질병으로는 간, 대장, 신경통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 사해충의 질병으로는 비뇨기과 질환이나 심장, 혈압, 당뇨 등에 관한 질병이 발생한다. 진술충, 축미충은 같은 토끼리 충하는 봉충이며 질병으로는 위장, 신장,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충은 신강일 경우에는 발전과 변화의 의미가 있으나 신약사주일 경우에는 관련된 장기가 수술하거나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용신을 대운에서 충하고 그 해에도 충이되면 본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 대운이 본인의 사주를 충하면 그래도 우환이 적으나 본인의 사주가 대운과 충하면 우환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불은 물로 충할 때 쉽게 꺼지는 것과 같이 증풍,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이 생사를 가리키며, 흙은 성품은 느리나 흙을 다 파가도 또 흙이 듯이 병도 긴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쇠는 부러지면 그만이듯이 부러지기도 잘하나 질기며, 물은 어느 곳이나 수분이 있듯이 긴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 3) 刑에 의한 작용

자묘, 인사신, 축술미등 삼형살이 서로 만나면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신약사주에 대운에 삼형살이 들어오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사신 삼형살이 12운성의 쇠병사묘가 되면 소아마비에 걸리기 쉽다. 시자에 사가 있고 인이 형하면 자손이 열병으로 죽거나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인사신은 지살과 역마가 중중하므로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자묘형은 액운

과 흉합이 있다. 진오술해형은 지지에 진진, 오오, 유유, 해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진진형은 물이 넘쳐서 해가된다. 요통에 조심해야한다. 오오형은 불길이 치솟아 해가된다. 음탕, 성병, 폐가 망신을 조심해야한다. 유유형은 금이 지나쳐서 가져오며 몸에 흉터가 있으며 병정일 출생자가 주중에 유유형살을 놓은 남자는 그 처가 불구자 인경우가 많다. 해해형은 물이 지나쳐서 해가 되고 주색으로 폐가망신하는 수가 많으니 조심해야한다.

### 4) 破에 의한 작용

파는 깨진다는 의미다. 풍파가 많다. 사업부도 폐가망신, 인간관계 절단 등의 의미가 있다. 희생 손해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환으로 파는 그 강약이 약한듯하나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듯하며 만성병에 해당된다. 파에는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묘오파, 사신파, 술미파가 있다.

### 5) 害에 의한 작용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유형무형으로 서로 질시하고 불건전한 관계 이익이 없는것, 좋은 사이가 불화합 하는,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좀처럼 양보할 줄 모르는 암암리에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해에는 자미해, 축오해, 인사해, 묘진해, 유술해, 신해해가 있다.

### (4) 神殺에 의한 작용

신살(神殺)이란 신은 일간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천간과 지지로 길신을 뜻하며 천간 지지 중에서 한글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간지가 짝 지워진 경우도 있다. 살은 일간에게 흉하게 작용하는 천간, 지지나 육십갑자를 말하며 흉살이다.

### 1) 길신

#### ① 일간기준

- 천을귀인 : 최고의 길신으로 지해가

뛰어나고 총명, 성격 활달.

- 학당귀인 : 총명하고 학문적인 발전을 쉽게 이루고 문장력이 뛰어나다.

- 문창귀인 : 학당귀인과 비슷하며 학업, 연구 등 주로 학문과 관련.

- 문곡귀인 : 학당귀인과 같은 의미이다.

- 과귀학관 : 학문에 정진하여 관운이 좋아 귀하게 되는 길신이다.

- 금여록: 황금수레를 뜻하며 성품은화, 덕이 많으며 주위의 신임 두터움.

## ② 월지기준

- 천덕귀인 :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는 의미로 흉액을 막아줌.

- 월덕귀인 : 조상의 음덕을 입는다는 의미가 있다.

- 천사성 : 하늘이 사면해준다는 의미로 모든 흉액이나 질병 등을 면해줌.

## 2) 흉살

① 12 신살 : 년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지도 참고한다.

- 겁살: 오행이 절지가 된 곳을 말한다. 겁탈을 당하거나 갑작스런 사고주의.

- 재살: 일명 수옥살이라고 하며 격렬한 싸움이나 사고 암시.

- 천살: 자연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정신질환, 심장병, 고혈압, 각종암, 신체마비, 언어장애 등에 취약하다.

- 지살: 역마와 같은 뜻이 있으며 태양에서 객사, 지살이 형충되면 교통사고에 주의해야한다.

- 년살: 도화살이라고도한다. 합지나 욕지라고하며 색난을 암시한다.

- 월살: 고초살이라고하며 여러 가지 장애나 병액 등의 불운예상.

- 망신살: 관부살로 주색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 장성살: 권위를 상징하며 문무겸비나 건강을 의미한다.

- 반안살: 금여록이라고하며 편안한 위치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 역마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변동이 많다.

- 육해살: 육액이라고하며 육친에 어려움과 질병, 자연재해나 관재수 예상.

- 화개살: 학문과 예술, 종교를 상징하고 공망되면 수도자가 될 운명이다.

- 공망살 :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 백호대살: 각종산재사고,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괴강살: 해당간지가 경진, 경술, 임진, 임술로 대충선동과 제압살이다.

- 양인살: 날카로운 칼날로 양을 잡는다는 의미로 강렬과 난폭, 횡폭함.

- 삼재: 12년마다 한번씩 돌아와서 3년 동안 재앙을 발생시킨다는 살.

- 도화살: 호색, 음란의 의미가 있으나 온전하면 미모 출중, 성적 매력 넘침.

- 역마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의미가 있음.

- 원진살: 서로원망하고 성낸다는 의미가 있음.

- 귀문관살: 귀신이 썩었다는 말로 신경쇠약이나 정신질환 변태적 성향으로 의치증이나 의부증 환자가 많다.

- 탕화살: 신체에 화상, 흉터 또는 부상을 입는다는 의미다.

- 고란살: 일생동안 외롭게 산다는 의미로

일주를 기준으로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해일 때만 적용된다.

(5) 12보운성중 쇠사묘절에 들어도 병이 온다. 십이보운성이란 포태법이라고도 하면 천간 기운의 강약을 설명한 것이다. 왕상휴수사 이론이라고 하며 계절에 배치하여 때를 얻는 것을 왕상, 잃은 것을 휴수라고 한다. 한나라시대 경방이 휴왕설로 발전시키고 후대사람들이 왕상휴수사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오행12생사학설로 발전된 후 포태법, 12운성을 발전된 이론이다(노영, 1998). 12운성은 만물의 생로병사 기운을 12가지로 세분화 시킨 것이다. 12운성은 絶, 胎, 養, 長生, 沐浴, 冠帶, 建祿, 帝王, 衰, 病, 死, 卯다. 旺相休囚로 구분하면 왕은 관, 왕, 쇠, 상은 생, 육, 태, 휴는 병, 사, 묘, 수는 절, 태, 양이다. 봄에는 목이 왕하고 화가 상하며 수가 휴사고 금이 수하며 토가 사하게 된다. 각 계절별로 왕, 상, 휴, 수, 사가 있다. 이것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소길 1998). 명조에서 판단할 때는 일간을 기준으로 각 지지를 보고 판단한다.

구분	旺	相	休	囚	死
봄	목	화	수	금	토
여름	화	토	목	수	금
6월	토	금	화	목	수
가을	금	수	토	화	목
겨울	수	목	금	토	화

<오행의 몸체 휴왕표>

구분	장생	목욕	관대	건록	계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갑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을	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병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정기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경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신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임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12운성조건표>

일간이 양인경우는 양포태법이라고하고 음간이 음인경우는 음포태법이라고 하는데 오행의 강약을 따질 때는 양포태법만 주로 사용하여 판

단한다. 그런데 고서인 적천수, 명리약언, 연해자평에 수는 음포태법을 쓰지 않았으나 삼명통회, 자평진전에서는 음포태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질병과 관련 있는 쇠묘사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1) 쇠(衰) : 한낮의 뜨거웠던 태양이 지기전으로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2) 병(病) : 병이란 사람에 비유하면 늙어서 병이 들어 본래의 보습을 잃은상태로 지모는 출중하나 실행력이 부족하고 신체가 병약하다.

3) 사(死) : 만물이 시들고 수명이 다하여 죽어있는 형상이다. 욕망과 희망이 없으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묘(墓) : 사람이 죽어서 관속으로 들어가는 격으로 융통성이 결여됐다.

(6) 육친의 기운을 보고 질병을 판단한다.

육친이란 원래 부, 모, 형, 제, 처, 자를 말하는데 자연의 기운을 인간세상의 일로 변환시킨 것이다. 사주에서 일간을 위주로 각 간지와 관계를 말하는데 십신 또는 육신이라고도 한다. 육친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 있다.

1) 比劫 : 비견은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겁재는 일주와 음양이 다른 것이다. 비겁은 주체성, 독립성, 고독성이다.

2) 食傷 : 식신은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상관은 일주와 음양이 다른 것이다. 특성으로 활동성, 창조성, 복덕이다. 식사가 왕성하면 건강하나 약하면 질병이 온다. 대운세운이 식신이면 질병에서 회복된다.

3) 財성 : 편재는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정재는 일주와 음양이 다른 것이다. 계획성, 풍요성이다.

4) 官성 : 편관은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으로

제압되지 않으면 칠살이라고 하고 제압되거나 인수로 화하면 편관이라 한다. 정관은 일주와 음양이 다른 것이다. 특성은 통제성, 합리성, 보수성이다. 관성이 태왕한테 제압, 설기되지 않으면 관살혼잡이 되면 가난하고 질병고통에 신음한다.

5) 인성: 편인은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으로 제압되지 않으면 효신살이라 식신을 극하면 도식이라 하며 제압되거나 설기되면 편인이라 한다. 정인은 일주와 음양이 다른 것이다. 특성은 글문, 자비심, 명예, 지혜이다. 대운세운이 정인운이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다.

(7) 대운과 세운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운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이라면 세운은 그해의 사건, 주제적 개념으로 건강과 질병에는 세운의 영향이 크다. 세운이 식상을 방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식상을 크게 위축시키는 편인운에는 건강이 나쁘다. 대운과 세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인 용신이 들어오면 편안하고 건강을 누릴 수 있으나 자신이 꺼리는 기신이 들어오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특히 신약사주 중 대운과 세운이 모두 충이 들어오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대운과 세운에 용신이면 건강하고 기신이면 질병이 온다. 용신이란 태어난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의 조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지를 말한다. 용신은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8) 공망이 있으면 그 오행에 해당하는 부위에 암이나 고질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공망이란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일공망, 년주를 중심으로 보는 년공망이 있다.

## V. 疾病豫測 판단 절차 및 질병진단 및 판단예문

지금까지 명리학 고전인 자평진전, 적천수, 명리보감등 고전과 국내의 주요 명리학 저술 및 석사 및 박사논문을 고찰한 결과 명리는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으며 질병판단에 대한 기준을 고찰하여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담자 방문 시 질병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정한 후 이를 근거로 명조를 진단하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 1. 질병진단 및 예측절차

(1) 오행을 종합 판단하여 身弱과 身强사주를 판단한다.

(2) 오행의 中和에 필요한 用神과 中和를 해치는 忌身을 판단한다.

(3) 오행의 太過不及을 판단하여 장기별 취약 질병을 분석한다.

(4) 일간에 의한 예상되는 질병을 판단한다.

(5) 六神에 의한 질병의 취약점을 판단한다.

(6) 12보운성에 의한 질병을 판단한다.

(7) 합, 형, 충, 파, 해를 판단하여 원국의 질병상태를 판단한다.

(8) 신살을 분석하고 질병을 판단한다.

(9) 대운과 세운을 판단하여 질병발생시기 질병종류 자연치유 시기 등을 판단한다.

(10) 종합 분석 한다.

### 2. 질병진단 및 판단사례

(1) 추00(남,79세), 1930.6.25 술시생(음)

1) 명조분석자료

時	日	月	年	사주				
정인	아신	식신	집재	육친				
戊+土	辛-金	癸-水	庚+金	天干				
戊+土	未-土	未-土	午+火	地支				
정인	편인	편인	편관	십신				
帶	衰	衰	兵	운성				
화개	반안	반안	장성	신살				
76	66	56	46	36	26	16	6	대운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친합,형	육합,과,형	친합,과,형	육합,반삼합	합형중파해				
양인살			친음,장명성	각종신살				

2) 질병진단 및 예측

① 금신 일주로 월지, 일지, 시지, 시간이 인수로 득령, 득지, 득세로 신강사주다. 따라서 신강사주로 타고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과 에너지를 받고 태어 났다고 볼 수가 있다.

② 금신이 신강하므로 금의 기운을 설기나 제어해줄 수 있는 오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기가 필요한 수나 제어를 해줄 수 있는 화,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이 요구된다. 그러이 본 사주에서는 더운 미월에 출생하였으므로 조후가 필요하므로 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 사주에서는 용신은 계수를 쓰는 것이 좋겠다. 기신은 토나 금이 된다.

③ 본 사주에서는 토가 4개로 태과하다. 따라서 토가 강하면 상극관계에 있는 수인 신장이 취약하게 된다. 따라서 비장과 위장은 강하여 소화기계통은 건강하나 신장과 방광으로 고생할 사주다.

④ 일간이 신금으로 신강하므로 금의 장기인 폐와 대장은 건강하나 상대적으로 금의 극을 받고 있는 장기인 간장과 담낭은 취약할 수가 있겠다.

⑤ 년지에 편관이 있으나 편관을 제어해줄 수 있는 식신이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겠다.

⑥ 12보운성은 쇠와 병이 있으나 양간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

⑦ 시주의 양인살이 있어 노후건강에 유의해야한다.

⑧ 대운에 따른 질병분석: 16세 이전까지는 금일주로 더욱 신강해져 금의 극을 받고 있는 간장과 담낭에 영향을 미친다. 26세부터 36세까지는 기신인 토의 영향을 받아 금의 장기인 폐와 대장이나 금의 극을 받고 있는 간과 담에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6세부터 56세까지는 용신인 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건강에 큰문제점은 없겠다. 56세부터 66세까지는 기신인 토의 영향을 받아 금이 더욱 신강해졌으므로 간과 담 질환이 예상된다. 66세부터 86세에는 지지인 목의 기운을 받고 있으나 천간의 금의 영향으로 목의 기운이 상실되므로 타고날 때부터 취약했던 신장병이 악화되어 각종 뼈의 문제 등으로 고생할 수가 있다.

⑨ 종합판단 : 본명은 사에 토가 왕하므로 土 체질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장과 위장은 튼튼하나 극을 받고 있는 수의 장기인 신장과 방광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체질을 타고 났다. 따라서 평소부터 신장과 방광건강관리에 집중해야한다.

또한 본인의 오행인 금은 신강하므로 타고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다. 그러나 대운과 세운에서 금이 신강해질 경우에는 금의 상극관계에 있는 木의 장기인 간장과 담낭에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운중 기신의 영향을 받는 56세부터 66세까지 간과 담낭의 질환이 우려되니 무리한 일과 술등 간에 유해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세 이후부터는 목의 기운을 받고 있으나 천간인 금으로 목의 기운이

상쇄되므로 본인의 근본문제인 신장과 방광에 중점을 두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분은 66세 이전까지 건강관리를 대체로 잘하였으나 66세 이후 신장성 요통, 디스크 협착증 등으로 고생하면서 이병원저병원 찾아 헤메고 있다. 사전에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 이00(여,34세), 1975,12,18,유시생(음)

1) 명조분석자료

時	日	月	年	사주				
편재	아신	비견	편관	육친				
癸-水	己-土	己-土	乙-木	天干				
酉+金	巳-火	丑-土	卯+木	地支				
식신	정인	비견	편관	십신				
生	旺	墓	病	운성				
재살	역마	월살	장성	신살				
76	66	56	46	36	26	16	6	대운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지충	반삼합	반삼합,파	지충	합형충파해				
	고진,소실살	백호살	월덕,수옥살	각종신살				

2) 질병진단 및 예측

① 이 명조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고 기축토가 돕고 사화가 생조하니 신왕사주다. 축월은 냉하고 땅이 얼어 조후가 급한데 일지 사화가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 사화가 조후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일간을 설기시키고 용신인 을목을 손상하니 화운이 와서 화극금하는 것이 좋다.

② 용신은 강한 금기운을 제어해주고 추운계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용신인 화가 필요하다.

③ 본 사주에서는 토가 3개이고 토를 상생하

는 火가 1개로 土가 太過하다. 따라서 土가 강하면 상극관계에 있는 수인 신장이 취약하게 된다. 따라서 비장과 위장은 강하여 소화기계통은 건강하나 신장과 방광으로 고생한다.

④ 일간이 토기로 신강하므로 土克水로 신장과 방광이 취약하다.

⑤ 년간과 연지에 7살인 편관이 있으나 시지에 식신이 있어 유년시절에는 질병에 큰 문제가 없겠다.

⑥ 12보운성은 년자에 병과 월지에 묘로 청소년기에 질병을 암시한다.

⑦ 신살은 월살과 재살, 역마살, 고진살, 백호살등의 흉살이 있어 질병을 암시한다.

⑧ 대운에 따른 질병분석 : 26세까지는 지지의 목의 기운으로 강한 토의 기운을 제어해주므로 질병에 큰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임진대운인 27세부터 37세까지 기신인 토의 영향을 받고 또한 대운의 지지와 월지에 丑辰波를 이룸으로써 인생의 파란과 질병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본인인 토의 기운이 더욱 왕하게 됨으로써 토의 相헤택관계에있는 수가 더욱 약해져 신장병, 척추질환 등을 예상할 수가 있다. 36세 이후에는 용신의 火의 기운으로 자연치유 되겠다.

⑨ 종합판단 : 본명은 현제 34세로 辰身 대운에 있다 또한 작년부터 年運인 水의 기를 받게 해가되어 추운사주가 더욱 추운사주로 변해 본래 취약한 신장질환과 척추협착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고생을 하고 있다. 36세 이후에는 자연치유 되겠으나 巳酉丑 金국을 이룸으로써 편관의 목을 해치므로 간장과 담낭질환이 예상되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VI. 결론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암, 당뇨, 고혈압, 중풍 등의 생활 습관 병과 난치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동양사상의 핵심인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사주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주명리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설은 여러 가지 학설에도 불구하고 우주탄생과 원리가 담겨있는 동양최고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역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역의 발전과정인 태극에서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사상을 낳고 사상에서 오행으로 오행에서 10간 12지로 발전된 과정을 설명하였고 사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오행과 10간 12지의 특징과 활용성을 고찰하였다. 사주명리를 이용해 질병을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사용되었던 고서와 역술가의 전문서적, 각 대학에서 연구된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명리와 질병과의 관계를 폭넓게 고찰하였다. 특히 고서인 「연해자평」, 「삼명통회」, 「궁통보감」, 「적천수」, 「명리정중」에서 질병에 관련된 추명의 원리를 탐색한 결과 질병은 생년월일을 오행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자신의 명조로 추론, 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공통된 이론은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이 질병의 핵심이며 사주 안에 나타난 오행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질병의 발생의 원인은 생활 습관적인 면, 환경적인 면, 면역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사주가 강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면 건강한 체질을 이루게 되어 건강할 수가 있으나 타고난 사주가 약하면 허약체질로 평생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타고난 사주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대운에서 형, 충, 파, 해를 만난다든지 기신운을 만나게 되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으며 약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대운에 용신운을 만나게 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약한 사람은 질병을 예방하기위해 사주원국을 분석하고 대운과 세운을 비교하여 오행의 태과 불급과 형, 충, 파, 해, 육친, 신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예문을 제시하여 보았다. 향후 이를 더 분석, 체계화시켜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1. 노영, 경방평전, 남경대학교출판부 1998
- 만민영, 『삼명통회』, 대북: 무릉출판유한공사, 2003.
2. 서락오, 『궁통보감』, 대북: 무릉출판유한공사, 2004.
3. 서승, 『연해자평평주』, 대북: 무릉출판유한공사, 2002.
5. 소길, 오행대의 대유학당출판부, 1998
6. 이철필, 『궁통보감(窮通寶鑑評註)』, 대북: 익군서점고빈유한공사, 2005.
7. 장남, 『표점명리정중』, 대북: 무릉출판유한공사, 2001
8. 진소암, 『정선명리약언』, 상해: 위씨명원, 1935.
9. 남궁상 한국사주학보감 서울 역학사 1992
10. 박재완, 『명리요강』, 서울: 신지평, 1997.
11. 박용규, 『입체오행』, 서울: 태웅출판사
12. 박찬국 『황제내경강의』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2005
13. 박청하 춘하추동 사주학 춘, 청화학술원

2005

학위논문, 2002.

14. 박일우편저, 『삼명통회』, 서울: 명문당, 1997.
15. 백영관 비전 사주정설 명문당 1991
16. 심재열, 『명리정종정해』, 서울: 명문당, 1997.
17. 심재열 강술, 『연해자평정해』, 서울: 명문당, 1995.
18. 엄태문, 『공통보감(상~하)』, 서울: 역학도서관, 2003.
19. 예광해, 『공통보감1~2』, 서울: 지남, 2003.
20. 이용준, 『정선명리약언』, 서울: 청학, 2007.
21. 이허중저, 오청식역 『연해자평』 대유학상, 2007
22. 정경대, 『음양오행의 의명학』, 정보사, 2004.
23. 정창근, 『명리학 통권 1,2』 장서원 2008
24. 정현우 『신비의운명학』 명문당 1993
25. 추성우, 『현대 사주추명학』 서울 명문당, 갑자년
26. 최봉수·권백철 강술, 『공통보감정해』, 서울: 명문당, 1992.
27. 김정혜, 「명리이론과 정신질환의 상관성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문종란, 「암질환 발생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8. 박효순, 「교통사고 일진의 명리학적 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9. 송병근. 「정신분열병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0. 유시옥, 「자폐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1. 정창근, 「장기별 중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